

15대 대통령선거 결과 분석

정대화

상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강력한 지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성별, 세대별 투표형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계도가 수치상으로는 아직 미미한 것이지만 울산과 포항, 창원 등 일부 노동자 밀집지구에서 노동자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투표경향 역시 호남지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투표결과를 향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노동자 밀집지구의 거점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1. 선거결과의 의미

97년 권력교체의 대통령선거는 국민회의 김대중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는 예측을 불허하는 박빙의 경합이었지만 국민들은 유권자들의 명백한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의 이에 기초한 표의 '동서현상' 및 갤럽과 MBC의 효과적인 예측조사로 인해 밤새워 개표과정을 지켜보지 않고서도 일찍 당락을 예측할 수 있었다. 개표상황을 눈여겨본 시청자라면 초반 이회창후보의 우세가 이회창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경북지역의 상대적으로 빠른 개표속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김종필과의 지역연합에 성공한 김대중후보가 유권자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수도권과 전통 유권성향인 제주도를 석권하면서 40.3%를 획득, 이회창후보와 1.6%, 39만여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당락을 결정지었다. 김대중의 승리는 해방 이후 단 한 번의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 근대정치사에서 최초로 그 정권교체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김영삼정권에 이어 군부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문민2기의 정권으로 진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또한 김영삼정권에 이어 그 이상의 평범위한 정치 사회적 개혁을 통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15대 대선외 투표양상

이번 선거의 투표양상이 지역주의적인 투표경향을 완벽하게 재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영남후보의 불출마로 지역주의가 완화되었다고 하는 소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일 뿐이다. 더욱이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 지역주의적인 투표행태가 정치적 대결구도와 결부되어 60년대 후반에 사라진 투표의 '동서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역주의적인 투표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별 득표경향을 별도로 구분해 보았다.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충청도와 호남을 거쳐 제주도에까지 서부지역이 김대중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반면 영남과 강원도는 이회창후보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과 경기가 전통적인 야당 선호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주지역이 김대중후보를 지지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평균투표율의 10%를 상회하는 광주와 전남북의 87.8%의 높은 투표참가율과 평균 지지율 40.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평균 93%에 달하는 김대중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정권교체에 대한 이 지역의 열망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15대 대선의 지역주의적 투표성향

구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투표율	후보별 득표수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서울	7,358,547	5,926,686	80.5	2,394,311 (40.9)	2,627,309 (44.9)	747,846 (12.8)	65,663 (1.1)
인천	1,639,655	1,311,516	80.0	470,560 (36.4)	497,839 (38.5)	297,739 (23.0)	20,340 (1.6)
광주	870,544	783,025	89.9	13,294 (1.7)	754,159 (97.3)	5,181 (0.7)	1,478 (0.2)
대전	881,474	692,823	78.6	199,266 (29.2)	307,493 (45.0)	164,374 (24.1)	8,444 (1.2)
경기	5,707,087	4,600,021	80.6	1,612,108 (35.5)	1,781,577 (39.3)	1,071,704 (23.6)	47,608 (1.0)
충북	1,015,921	805,500	79.3	243,210 (30.8)	295,866 (37.4)	232,254 (29.4)	10,232 (1.3)
충남	1,330,627	1,024,226	77.0	235,457 (23.5)	483,093 (48.3)	261,802 (26.1)	9,604 (1.0)
전북	1,391,537	1,190,193	85.5	53,114 (4.5)	1,078,957 (92.3)	25,037 (2.1)	4,189 (0.4)
전남	1,519,292	1,325,748	87.3	41,534 (3.2)	1,231,726 (94.6)	18,305 (1.4)	2,199 (0.2)
제주	361,680	278,999	77.1	100,103 (36.6)	111,009 (40.6)	56,014 (20.5)	3,856 (1.4)
부산	2,692,311	2,124,138	78.9	1,117,069 (53.3)	320,178 (15.3)	623,756 (29.8)	25,581 (1.2)
대구	1,707,338	1,347,062	78.9	965,607 (72.7)	166,576 (12.5)	173,649 (13.1)	16,258 (1.2)
울산	654,125	529,794	81.0	268,657 (51.4)	80,671 (15.4)	139,615 (26.7)	32,135 (6.1)
경북	1,988,379	1,574,465	79.2	953,360 (61.9)	210,403 (13.7)	335,087 (21.8)	22,382 (1.5)
경남	2,094,036	1,681,589	80.3	908,808 (55.1)	182,102 (11.0)	515,869 (31.3)	27,823 (1.7)
강원	1,077,853	846,574	78.5	358,921 (43.2)	197,438 (23.8)	257,138 (30.9)	8,231 (1.0)
합계	32,290,416	26,042,359	80.7	9,935,379 (38.7)	10,326,196 (40.3)	4,925,370 (19.2)	306,023 (1.2)

반면 이회창후보는 지역주의적인 투표경향 하에서 자신의 지역적 근거지로 설정된 영남지역에서 이인제후보에게 유효투표의 24.6%에 해당하는 약 170만표를 내어주었다. 따라서 지역주의적인 관점에 설 경우 이인제후보의 출마는 이회창후보가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김종필과의 지역연대를 통해 충청도의 지지를 획득한 것도 지역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요한 해석일 뿐 해석의 진부는 아니다. 김대중후보의 승리에는 지역주의 이외의 요인도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김대중후보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유권자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이회창후보의 37.8%를 4% 가량 앞선 41.5%를 획득한 것이나 전통적으로 여당 성향의 후보를 지지해 왔던 제주도에서 진례를 깨고 1위를 한 것 등은 지역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다. 이것은 김영삼정권과 이회창후보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15대 대선에서 김대중후보의 승리는 지역주의적 요인과 비지역주의적 요인이 동시에 적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주의적 요인으로는 김종필과의 지역연대에 의한 충청지역의 지지 획득, 영남지역에서 여권성향 후보의 난립, 그리고 부차적인 요인이지만 호남지역 유권자의 높은 투표율과 김대중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비지역주의적 요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의 승리 및 기타

이회창후보가 앞선 지역에서의 득표율 상승 등을 거론할 수 있다.

3. 14대 대선과의 비교

이 결과를 14대 대선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다. 14대 대선 당시 김영삼후보는 서울과 광주 및 전남북을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승리한 반면 김대중후보는 오직 4곳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5년 후인 이번 대선에서는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김대중후보는 영남과 강원도 5개 시도를 제외하고 10개 시도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14대 대선 이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은 경남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것만으로도 김대중후보가 승리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밖에도 부산과 경남북 및 강원도 등 이번 대선에서 이회창후보가 승리한 지역에서도 김대중후보의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득표율을 지난 대선 당시의 득표율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이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김대중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이회창후보에게 패배한 5지역에서도 14대 대선에 비해 평균 득표율을 증가 3.2%에 약 33만여표의 추가 득표를 실현했다.

(표 2) 14대, 15대 대선 득표상황 비교

지역	14대 대선		15대 대선		지지변화양상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김대중	
서울	2,167,298	2,246,636			
부산	1,551,473	265,055			
대구	690,245	90,641			
인천	397,361	338,538			김영삼 → 김대중
광주	14,504	662,337			
대전	202,137	165,067			김영삼 → 김대중
경기	1,254,025	1,103,498			김영삼 → 김대중
강원	340,528	127,265			
충북	281,678	191,743			김영삼 → 김대중
충남	351,789	271,921			김영삼 → 김대중
전북	63,175	991,483			
전남	53,360	1,170,398			
경북	991,424	147,440			
경남	1,514,043	193,373			
제주	104,292	85,889			김영삼 → 김대중
합계	11개 시도	4개 시도	5개 시도	10개 시도	6개 시도가 김대중 지지로 변화

(표 3) 기타 지역에서 김대중후보의 득표율 상승

구분	14대 득표율	15대 득표율	득표율 상승
부산	12.4	15.1	2.7
대구	7.7	12.4	4.7
강원	15.2	23.3	8.1
경북	9.5	13.4	3.9
경남	9.1	10.8	1.7
5지역 평균	11.1	14.3	3.2
득표수	823,774	1,157,368	333,594

이렇게 볼 때 92년의 14대 대선 당시 김영삼후보가 3당합당제 하에서 호남의 고립화를 득표에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후보가 당시 3당합당의 두 주축이던 김종필 및 박태준과 연합함으로써 영남의 고립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4. 분야별 지지성향 분석

그러나 범주적으로 작동하는 강력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 하에서도 분야별로 작동하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연령별, 성별, 학력별, 계층별 등의 변수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이 투표 전날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편별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 김대중후보를, 장노년층에서는 이회창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이회창후보를, 남성이 김대중후보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에서는 이회창후보를, 고학력에서는 김대중후보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직업적으로는 공무

원과 주부 및 퇴직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 분야에서 김대중후보가 이회창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볼 때 김대중후보는 이회창후보에 비해서 지역연고에 의한 지지 외에 유권자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20, 30대 젊은층의 지지와 고학력층의 지지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젊은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제후보의 경우 20대 후반의 지지도에서 김대중후보에 뒤지고 이회창후보에 앞섰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김대중, 이회창후보에 뒤졌음

(표 4) 분야별 지지경향

연령별 \ 구분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20대 초반	32.4	40.4	23.5	4.1
20대 후반	23.7	41.5	30.6	4.1
30대 초반	27.4	46.4	24.5	1.8
30대 후반	40.7	36.3	22.5	0.5
40대 초반	47.9	32.0	19.5	0.6
40대 후반	46.8	30.0	22.5	0.7
50대	41.4	47.2	10.9	0.5
60대 이상	52.8	32.1	13.5	1.6
성별				
남자	33.4	41.7	22.2	2.7
여자	43.4	35.9	19.9	0.8
학력별				
중졸 이하	45.4	34.4	19.1	1.1
고졸/고퇴	32.9	41.7	24.5	0.9
대(원)재	29.6	39.6	23.9	6.9
대졸/대퇴	42.2	38.2	16.9	2.8
대학원이상	60.0	30.3	4.9	4.9

을 알 수 있다. 이인제후보의 지지 경향은 학력이나 성별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보여 주지 않는다.

5. 노동자후보에 대한 지지도

15대 대선은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국민승리21의 권영길후보가 민주노동과 전국연합의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출마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권영길후보는 애초의 기대에 못미치는 득표율 1.2%, 30여만 표의 획득에 머물고 말았다. 여기에는 국민승리21의 선거전략상의 문제점,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수준 등 내적인 요인들도 작용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보수적인 정당대결 구도 하에서 강력한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몇가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권영길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역별으로는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연령적으로는 30대 초반 이전, 학력별로는 대재에서, 그리고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전문직종 및 공무원

과 기술직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권영길후보가 노동자들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영길후보는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에서 전국평균 지지율의 5배를 상회하는 6.1%의 지지를 획득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에서 13.8%,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에서 9.6% 등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포항, 구미, 창원 등에서도 유사한

〈표 5〉 권영길후보의 득표율

지역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울산 중구	54.3	13.3	25.6	5.1
남구갑	58.7	13.3	23.4	3.3
남구을	55.5	14.2	25.0	3.9
동구	40.9	22.2	25.9	9.6
북구	42.9	14.6	27.0	13.8
울주	50.0	12.7	32.3	2.8
포항 남구	62.5	14.2	19.5	1.7
경주 갑	58.7	12.1	23.4	2.3
을	61.2	12.0	21.1	3.3
구미 갑	56.8	15.4	23.7	2.5
을	61.2	14.2	20.3	1.7
창원 갑	51.5	12.3	31.8	2.8
을	52.1	15.3	27.7	3.8
거제	40.7	11.4	41.1	3.9
전국 평균	38.7	40.3	19.2	1.2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집단적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권영길후보외의 경우 경남북과 경기, 울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0.2%, 전북에서는 0.4%에 머물러 노동자의 정치의식이 지역주의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지만, 김대중후보의 득표율이 낮은 지역에서 권영길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약간의 평가

현행 선거법상 출구조사가 금지되어 있는 데다가 학술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자조사의 결과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나 투표 직전의 여론조사 자료는 몇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4대 대선의 지역주의에 반하는 역지역주의적 투표경향이 60년대의 투표의 '동시현상'을 재연하면서 강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 지역주의가 가장 강력한 투표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 확인되는 높은 투표참가율과 압도적인 김

대중후보 지지율은 지역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 속에는 장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열망마저도 지역주의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이다.

그러나 강력한 지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성별, 세대별 투표행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게다가 수치상으로는 아직 미미한 것이지만 울산과 포항, 창원 등 일부 노동자 밀집지구에서 노동자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경제적 투표경향 역시 호남지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투표결과는 향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노동자 밀집지구의 거점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지역주의적 정서가 가장 강력한 투표결정요인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영삼, 김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이 소진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성화되면 지역주의를 대체하는 사회경제적 투표경향, 또는 투표의 계급계층적 차별성이 새로운 투표경향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